



✍ Ursula Nafula
 📧 Jesse Pietersen
 📁 Jong Yong Park
 🗣 Korean
 📖 Level 2



꺠라어는 식룸에게 림해프



Storybooks Canada

storybookscanada.ca

꺠라어는 식룸에게 림해프

Written by: Ursula Nafula

Illustrated by: Jesse Pietersen

Translated by: Jong Yong Park

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(africanstorybook.org)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's stories in Canada's many languag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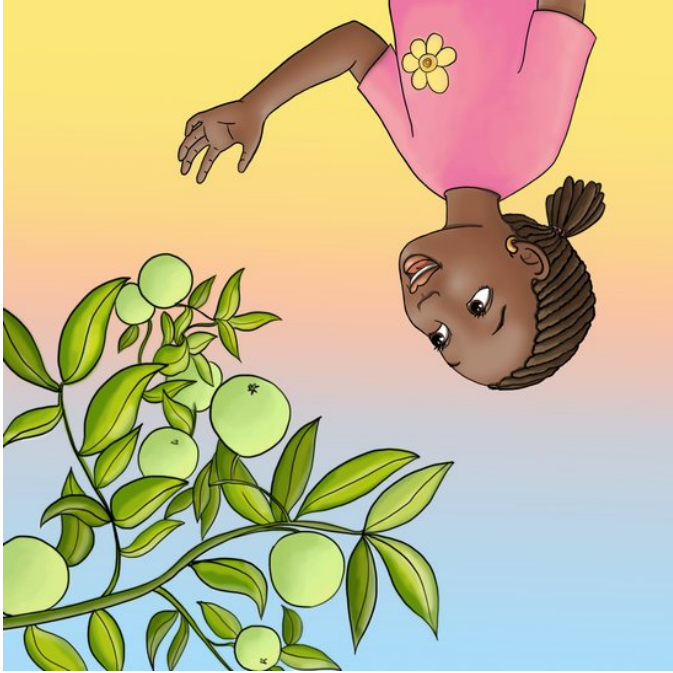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

여긴 칼라이에요. 그녀는 일곱살이죠.
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말 루복수로 “좋은 아이” 라는 뜻 이예요.

“클라어는 일어나서 오렌지 나무에게 만
유요.” “오렌지 나무야, 크게 자라서 우리
에게 많은 오렌지를 주렴.”





칼라이는 학교로 걸어가요. 가는 길에 풀에게 말해요. “풀아, 더 초록색으로 자라고 마르지 말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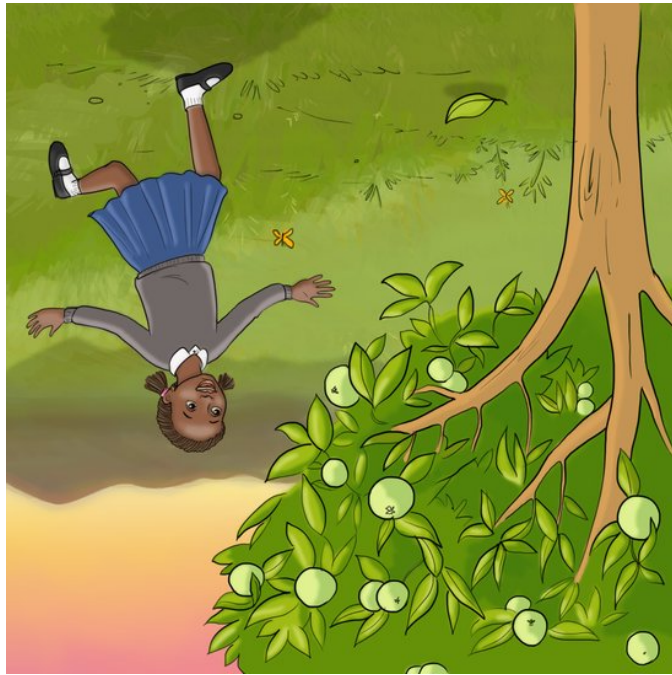


“오렌지가 아직 초록빛이구나,” 칼라이가 한숨을 쉬어요. “내일 보자, 오렌지 나무야.” 칼라이가 말해요. “어쩌면 그때는 네가 날 위해 잘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!”

클라어는 아생화를 지나쳐가요. "꽃을
아, 계속해서 피어나서 너희를 내 머리
에 꽃을 수 있게 해주렴."



클라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,
오렌지 나무에게 들려요. "네 오렌지는
아직 익었니?" 클라어가 물어요.





학교에서, 칼라이는 단지 중앙의 나무에게 말해요. “나무야, 큰 가지를 뺏어서 우리가 네 그늘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칼라이는 학교를 둘러싼 생울타리에게 말해요. “강하게 자라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렴.”